

화장실신문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화장실 신문 2호 (2002.3.18)

안녕하세요.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입니다. 이제 두 주 째 되어 가는 학교생활을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길고 긴 고생 많았던 수강신청은요, 총여학생회의 모두는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학교와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두 주를 보냈답니다. 이제 남은 3월의 두 주는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들과 함께 행동과 웃음이 가득한 두 주가 되자구요!!

기분좋은 움직임

3월에 총여에서는요,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학 학교는요,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동안 열리구요. 세 가지 주제(학창시절의 나의 경험들, 모성, 생리)를 가지고 얘기하려 합니다. 머리 속에서 추상적으로만 맴도는 '여성학'. '감'잡으시고 싶으시다면, 3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여성학 학교로 오세요. 여성에 대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온 우리들의 경험들을 우리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또 여학우 새로배움터도 있어요. ...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구요. 첫째날은 토크쇼, 둘째날은 선배와의 만남, 마지막 날엔 파티가 있을거예요. 세내기로서, 여학우로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행복하듯이, 많은 것을 배워가는 새터를 만들어가요~

나왔다! 뽕!



신촌에 처음 들어서면 연세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수많은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코너에 있는 상점의 이름을 따라 붙여지는 각각의 골목-파파이스 골목, 대한 약국 골목 등-에서 우리는 많은 종류들의 술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신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가에는 술집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대학에 갓 입학해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뒷풀이때와 새터할 때 술자리를 갖게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선배들과 동기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자리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14대 총여학생회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돌!'

술문화에 경험이 없었던 많은 동기들이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억지로, 질세라 주량도 모른 채 마셔서 얼굴도 벌개지고, 속이 안좋아져 구토를 하는 등, 탈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한번에 들이켰을 때 "와"라는 함성소리와 "오~ 강한데"라는 반응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데..'라는 압력으로 다가오고, 뒷풀이 장소에 뒤통스게 온 '하늘과 같은' 고학번 선배가 손수 따라주었던 술을, 분명 강요는 아니었지만 마셔야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술문화가 대학문화에서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지 '친목도모 장소'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나봅니다. 그리고 그 우리만의 '유대감'은 술을 마신 후 모두 함께 술집에서 나와 원을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은 후 깃발을 흔들며 아카라카를 외칠 때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왜 대학 내 '관계 맺음'에 술문화가 그리도 깊숙히 자리잡고 있을 것일까요? 중, 고등학교 시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맺음'의 수단과 경험들은 획일화된 술문화 속으로 침전되어 버린 걸까요? 혹은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일까요?

많은 술자리에서는 여자 선배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술자리라는 것은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상 술자리에서의 '관계 맺음'은 남자 선배와 남자 후배로 이어지는 위계에서의 소통 수단인 것이지요. 이런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여학우들 간의 관계들은 배제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자리 내에서의 걸리지 않고 방출되는 무수한 폭력(물리적이건 언어적이건)들과 분명 우리 내의 술자리 문화의 지양해야 할 모습입니다. "술을 같이 먹어봐야 사람을 바로 알 수 있다."와 같은 말들은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원.한. 게.시.판.